

코로나 3차 확산에 제주행 발길 '뚝'

크리스마스 연휴 관광객 5만여명... 전년비 60% ↓ 렌터카 가동률 40%·숙박업소 예약률 30% 이하로

최근 제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3차 확산하면서 크리스마스 연휴기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4-26일 제주를 찾은 입도객은 5만2510명으로 전년 동기(12만9601명) 대비 59.7% 감소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지난 10월 한달

간 100만명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고, 렌터카 예약률 역시 90%대를 기록하면서 제주관광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달 들어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렌터카 가동률은 40% 내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가 제주공항 렌터카하우스

에 대한 현장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골프 관광객 등이 자주 이용하는 11인승 승합차량에 대한 대여가 전무했으며 렌터카 가동률은 40%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숙박업소 예약률은 평균 30% 내외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함덕해수욕장 등 제주지역 8대 핵심 관광클러스터는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혼식 등은 대형 호텔을 중심으로 일부 예약이 진행됐으나 대부분 예약은 가족단위로 감소화됐으며, 식사 제공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재확산 기세를 꺾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오는 1월 3일까지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사우나·목욕탕 집합 금지 등이 담긴 제9차 특별행정부령을 발령했다.
도는 앞으로도 렌터카 업체 및 버스터미널, 정류장, 택시, 버스 등의 방역수칙 실행을 확인하고 해맞이와 해넘이 명소 등과 입도관문에 대한 특별 점검을 받고 있다.
이태원기자 lty9456@ihalla.com

선장 켜진 외국인선원 징역형

제주지역에서 선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외국인 선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선원 A(35)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오후 8시쯤 제주시 애월읍 애월항에 정박중인 72t급 목포선적 안강망어선 K호에서 선장 B(54·목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료 선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어선 갑판에서 동료 선원들과 함께 고기 상자를 정리하다 선장인 B씨가 일을 잘 못한다며 나무라자 갖고 있던 작업용 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가 중하지만 A씨가 베트남에 부양할 가족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상민기자

길 건너던 70대 차에 치어

아파트 인근 도로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차에 치어 숨졌다.

27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3시39분쯤 제주시 도남동 소재 모 아파트 앞 도로를 건너던 A씨가 승용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대희기자



코로나19 검사 행렬 주말인 26일 제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는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상민기자

제자 추행 국제학교 외국인교사 징역 6년

재판부 "죄질 아주 안중아"

어린 제자를 강제추행한 제주 모 국제학교 외국인 교사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리셔스 국적의 외국인 교사 A(49)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아동·청소년복지시설과 장애인보호시설에 대한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한 국제학교의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올해 1월 중순 유치부 요가 수업 도중 5살 미만 원아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강제 추행하는 등 한달 사 이 원아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종 피해자 2명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수업이 이뤄지는 학교 내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으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방역지침 어겨 돌고래 관광"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24일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모 업체가 방역지침을 어긴 채 돌고래 관광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날 오후 3시쯤 모 업체 소속 오토 선박 위에서 정확히 20명이 딱딱딱 붙어서 돌고래 관광을 하고 있었다"며 "제주도가 이날 0시를 기해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특별방역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이들은 거리두기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에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도 원인이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강대희기자 dhkang@ihalla.com

■ 원희룡 지사 24일 선거법위반 혐의 선고 "벌금 90만원"... 도지사직 유지

재판부 "피자 제공과 즉세트 홍보는 기부행위"

원 지사측 항소 포기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유죄 판결에도 원 지사는 지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공직 자동 퇴직과 공무원 임용에 5년간 제한을 받는 처벌 규정은 벌금 100만원부터 시작한다.

원 지사는 2019년 12월 12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도내 모 업체가 생산한 즉 세트를 홍보한 혐의와 올해 1월 2일 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직원과 교육생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자는 제주도 일자리과가 업무추진비로 구입했다.

재판부는 두 행위 모두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수행과 무관한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즉 세트 홍보에 대해 "(피고인의) 홍보 효과로 인한 이득이 즉 세트 판매업자와 판매업체에

게 돌아갔다"며 "또 조례와 법령, 정당한 절차에 의해 홍보 대상을 선정 한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즉 세트 홍보가 통상적인 제주 특산물 홍보에 해당한다는 원 지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즉식 조식 식품, 냉동식품이어서 일반적인 특산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자 제공에 대해서도 "행안부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이 아니다"면서 "단지 음식물을 제공한 것을 지자체 사무로 인정할 수 없고, 더큰내일센터 조례에 규정된 재정 지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누구보다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 하고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면서 "다만 기부행위가 도지사로 선출된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다음 선거 기간도 많이 남아 있어 향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제주도를 홍보할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다는 원 지사의 주장에 대해 "영상 속 주인공 대부분은 피고인 자신"이라며 "피고인을 대중에 널리 알리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원 지사는 항소를 포기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미성년 성착취 동영상 제작 배준환 징역 18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 동영상 수천개를 제작·유포해 신상이 공개된 배준환(37·경기)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사회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을 광범위하게 배포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는커녕 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좋지 않

다"고 판시했다. 배씨는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소년 4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1293개를 제작하고 이중 88개를 음란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 여성 8명과 성관계를 하며 촬영한 영상 907개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배씨는 오픈채팅방에 수위높은 사진을 올리면 문화상품권, 기프트카드 등을 주겠다고 청소년을 유인해 자신의 닉네임인 '영강(영어강사)'이 적힌 종이를 들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게 한 뒤 협박했다. 특히 배씨는 N번방과 박사방 사건으로 떠들썩하던 올해 3월부터 오히려 범행을 집중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상민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 효과

- 잡초의 경감 PH(산도)조정 석회효과
-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 높은 저장성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 강력한 라임효과
- 뿌리혹병의 경감

코코리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 다량이추출물 핵심 물질: 토양의 pH를 맞추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 필리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 PGA: 알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분분을 뿌리 깊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 바실러스: 유기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저지하는 역할을 함
-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 제공함
-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U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키위농가에 희소식
21세기 최첨단 비료 → "이노페스" 탄생
히트류가 들어있는

이노페스

뿌리 발달, 당도 향상, 신진대사 촉진, 내병성 강화, 광합성 촉진, 종미개선

이노페스 성분

원료명	효과
히트류	염류중화· 토양개량· 천연항균 작용
식이유황(MSM)	천연항균 작용
부식산	유기물 대체· 토양개량
벤토나이트	토양개량
고삼·백합추출물	토양해중기피
아미노산	천연질소질 공급
미량요소(Mg, B, Mo, Cu, Fe, Mn, Zn)	필수 미량요소 공급

특징

- ☆가스피해가 없다
- ☆항균작용으로 토양이끼 억제
- ☆염류중화 작용으로 뿌리생육 발달로 역병예방
- ☆시비가 간편하며 시간과 인건비 절약 ☆히트류 첨가로 작물의 기작 조절

사용방법
키위 = 1,000평 기준 20~25포(포당 15Kg)
※ 다른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는 사용될 필요가 없습니다

생산처 (주)포트라 판매처 농협·김협
공급처 (주)포트라 제주지사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